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79호 【루계 제23231호】 주체99(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자!》를 비롯한 천만군민의 수령결사옹위의 맹세가 담겨진 구호들이 나붙어있는 훈련장에는 무적필승의 전투적기상이 나래치고있었다.

경사로운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자기들의 훈련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군부대 군인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훈련장에 도착하시자 군부대장병들과 참관자들은 50성상에 달하는 선군혁명령도의 장구한 기간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키우시여 주체적군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신 우리 혁명무력의 건설자, 최고사령관이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동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당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박도춘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부장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참가자들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국방공업부문의 일군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군종, 병종사령관들을 비롯한 장령들이 맞이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전망대에 오르시여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시작구령이 내리자 각종 지상포들의 위력한 화력타격과 구분대들의 치밀한 협동에 의하여 《적진》은 송두리채 날아나고 《적집단》은 삽시에 소멸되였다.

훈련은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다지고다져온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단매에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할 멸적의 투지에 충만된 인민군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무자비한 타격력을 잘 보여주었다.

군부대장병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군인들의 협동훈련을 보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참관자들은 우리 군대의 필승불패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군사훈련을 보면서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었으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로 조선인민군을 천만대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당백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부대들이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으며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함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육탄결사대, 선군혁명의 전위투사들로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속에서 억척같이 단련된 이 강철의 정예대오, 무적의 대군을 가지고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장병들이 당의 훈련방침을 높이 받들고 훈련을 맹렬히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무장으로 견결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훈련에 참가한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군부대 전체 군인들은 자기들의 훈련을 보아주시고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신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원히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며 조국보위성전에 한몸 다 바칠 결사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 일본의 인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쭘말리 싸이냐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짜런 와린타라싹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동지의 가족과 도모이 기미가즈 일조우호효고현민의회 고문이 5일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각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재로씨야 정일심동포 가족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외교단단장인 마르띤 똠쵸 체스꼬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에게 전달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로씨야동포정일심가족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정일심동포가 5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혁명적당의 불패성의 담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과 풍파속에서도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기상!

그것은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앞에 부닥친 난관과 시련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엄혹한것이였다.

우리 당과 혁명이 처한 특수한 환경과 국제정세흐름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 우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는 당의 위업수행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겹쌓이는 난국을 뚫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혁명적당은 군대가 총대로 보위해주어야 그 불패성이 담보되며 혁명군대는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고 당이 군중을 조직동원해주어야 무적의 힘을 발휘할수 있다. 당과 군대가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원쑤와도 싸워 이길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 …

선군위업의 불패성이자 당의 불패성이라는 진리가 뜨겁게 맥박치는 말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 독창적인 혁명철학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미제의 반공화국책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시였다. 자신께서는 전사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것이라고 하시며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다 찾아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의 위대한 헌신의 선군장정이 있어 조국의 모든 고지들과 초소들이 선군의 산악,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사회주의군사강국의 기둥, 조국번영의 강력한 전위대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장쾌하게 열리였다.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는 또 얼마나 거창한 전변의 화폭들을 펼치였던가. 혁명적군인문화가 창조되고 군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생활기풍과 일본새가 온 사회에 흘러넘치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전당에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가 확립되고 모든 정치사업이 화선식으로, 공격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천만군민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진군에서 전례없는 기적이 창조되고 우리 당의 권위가 비상히 높아진 자랑찬 현실…

이는 명실공히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당을 백전백승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가 얼마나 위대한 결실을 안아오는가를 확증하는 력사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강성대국승리는 필연적이고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본사기자 김성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자

량강도, 라선시경축대회 진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는 량강도, 라선시경축대회가 5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장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고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대회장들에 모셔져있었다.

붉은기들이 나붓기고있는 대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량강도에서

량강도경축대회에서는 김재영 도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도림업관리국 국장 유치정,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혜산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일,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김정숙사범대학 청년동맹비서 정광호,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혜산공업대학 학장 고영수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소식에 접한 도내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끝없는 환희와 격정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날 사람 못살 곳으로 버림받던 량강도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도내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도가 유색금속광물과 통나무생산기지로 전변되였으며 백두삼천리벌에서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고 말하였다.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연설자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의 군사적보루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데 기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함으로써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들고 혜산청년광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백암땅을 대홍단처럼 감자산지로 전변시켜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라선시에서

라선시경축대회에서는 전경철 시당위원회 비서의 연설에 이어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라진건물보수사업소 지배인 정진철,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유현농장관리위원장 최강록,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시청년동맹 비서 김경철,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라진해운대학 부학장 김정수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심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굳건히 마련되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라고 하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특출한 정치군사적실력과 비범한 령도로 사회주의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라선시를 여러차례 찾으시여 수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라선대흥무역회사를 비롯한 수출품생산기지들이 일떠서 수출품생산과 무역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나라의 륭성번영에 이바지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당의 무역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출품생산과 무역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가공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가공기술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해상운수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잘하여 라선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릴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축대회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경축하여 단마르크, 핀란드, 방글라데슈에서는 집회가, 메히꼬에서는 강연회가, 브라질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개막식이, 타이에서는 영화감상회가 9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행사장들에 전시되여있었다.

행사들에는 단마르크공산당,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자력갱생연구소, 메히꼬로동당, 브라질 싼 빠울로주 깜삐나스시청, 타이 마리너즈선박무역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단마르크공산당 전국지도부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당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대중적당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요인은 희세의 위인들을 령도자로 모시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이며 그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라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위원장은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행복이며 대경사이라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짓부시고 백전백승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브라질 싼 빠울로주 깜삐나스시 시장은 조선의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를 진행하는 기쁨을 피력하면서 전람회는 조선인민의 창조적재능과 문화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두터이 하는데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양형섭동지와 로두철 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사회단체,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조선은 하나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자

평양시보고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의 보고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당창건 65돐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단합하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습니다.

이 력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당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을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강령입니다.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세기 70년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초석을 튼튼히 다져놓으심으로써 조국통일기운이 전민족적범위에서 급격히 고조되도록 하시였습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온 민족의 앙양된 기세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와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꿈꾸면서 7.4공동성명을 뒤집어엎고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였습니다.

특히 1979년 10월민주항쟁과 1980년 5월 광주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이 더욱 높아지자 미제와 남조선의 군사파쑈분자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남침위협》과 《적화통일》에 대해 떠들며 북남대결을 고취하다 못해 《통일불가능론》까지 력설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9(1980)년 10월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련방국가형성의 원칙과 방도, 련방국가의 성격과 기능, 통일정부와 지역정부의 임무와 그 호상관계 등 통일국가창립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방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리익과 통일적발전을 위한 사업을 토의결정하고 추진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할데 대하여 밝히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밑에 지역자치제를 실시하고 전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북과 남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나라의 전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실시하여야 할 시정방침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였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의 10대시정방침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합작과 교류를 진행하고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와 민족련합군의 조직, 해외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리익의 옹호, 중립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의 실시 등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우리 민족의 통일념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입니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것입니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북과 남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며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입니다.

련방제통일방식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전쟁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련방제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 민족은 전민족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통일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투철한 민족자주정신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일관되여있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지도적지침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력사적사변으로서 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조국통일의 기치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겨레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19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할데 대한 문제를 제시하여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함께 조국통일의 3대기둥을 이루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여 자주통일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시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였고 절절한 념원이였던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을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적의무로,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의 유훈관철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북남관계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는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고귀한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 세기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주시여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으며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을 크나큰 도량과 인덕의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끝없는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고 백승의 선군령도로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조국통일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필승불패의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고계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이며 확고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통일위업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조국통일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강성대국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미국의 비호밑에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망상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망발을 줴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들고나온 《3단계통일방안》이니, 《통일세》니 하는것 역시 위험천만한 체제대결선언이며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반통일적궤변입니다.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련방제방식으로 하루속히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초보적인 분별이라도 있다면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하며 온 민족이 지지하고 세계가 공인하는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입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불변의 리정표입니다.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이 빛나게 구현되여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투철한 민족자주리념과 확고한 통일의지가 맥박치고있으며 련방제통일방안을 비롯하여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원칙과 방향,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습니다.

오늘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에 의하여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조성된 커다란 장애와 난관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지 못하면 엄청난 재난과 민족의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민족의 생명인 자주도 있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있으며 민족의 번영도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최상의 지위에 놓고 적극 지지하고 실천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그 리행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속과 정견, 과거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손잡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함께 열어나갈것입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극도로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면서도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반공화국제재와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특히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을 전진배비하고 북침을 노린 각종 전쟁연습들과 군사적도발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습니다.

남조선괴뢰패당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미 그 모략적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난 괴뢰합선침몰사건을 걸고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족은 분렬의 비극우에 핵전쟁의 참화까지 당하게 될것입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드높은 반미기운을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를 철수시키고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규탄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선군의 기치밑에 다지고다져온 자위적핵억제력을 포함한 무진막강한 군사적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은 통일의 담보입니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줄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수 없는 전민족적위업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리익인 조국통일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련대, 련합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운동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민간인들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마저 가로막는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통일파쑈악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공화국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30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위대한 선군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이 있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중국공산당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인 주영강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공산당대표단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게 된다.

직관선동을 실효성있게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석탄증산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을 잘 조직하여 그 실효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2호전차갱앞의 속보판이 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된데 이어 모든 갱, 직장의 속보판들도 일신되였다.

직관선동을 기동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조건이 보다 훌륭히 갖추어진데 맞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단위들에서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생산적앙양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동공세를 드세게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5갱 막장에서 갱부문의 초급선전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를 조직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초급선전일군들은 막장의 실정에 맞게 직관선동을 실효성있게 진행할수 있는 방법을 적극 체득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탄광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직관선동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호소성이 높은 직관선동에 고무된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자기 힘을 믿고 일떠선 보람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자체의 힘으로 설비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내밀어 여러가지 식료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화하며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모두가 가슴을 들먹이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던 년초의 어느날이였다.

공장초급당위원회사무실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앉아 심중한 의논을 하고있었다. 이미전부터 론의되여오던 설비의 현대화문제였다.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다른 단위들의 방조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때 지배인 서인옥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져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새로운 종합식료공장으로 개건된 영광의 일터입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것은 우리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며 더없는 영예입니다.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냅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결심을 도당위원회에서도 적극 지지해주었다. 도당의 책임일군들은 제기되는 문제들을 말아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이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렇게 되여 한찬익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확고한 자신심을 가지고 가공설비의 현대화를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갔다.

온 공장이 전투를 도와나섰다. 공장의 일군들은 설비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재때문에 신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150여개나 되는 전동기와 각종 온도수감장치들에 들어가는 전자요소들만 하여도 적지 않았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끝에 어느덧 시운전을 하는 날이 왔다. 온 공장이 기쁨으로 끓어번지였다. 10여명이 하던 일을 콤퓨터조종공과 감시공이 몇시간내에 해제끼게 되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가공설비의 현대화를 자체의 힘으로 성과적으로 해제꼈다는 소식은 온 공장에 기술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류종렬, 리금주, 김경옥, 지향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제품의 질을 더한층 높여나갔다.

지금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기의 힘을 믿고 일떠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음료생산설비와 산나물가공설비들을 현대화할 높은 목표를 또다시 내세우고 그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기념우표 발행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 기념우표 (묶음전지 1종, 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들을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하였다.

소형전지와 묶음전지에는 조선로동당을 상징하는 당마크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돐기념》, 《주체34(1945)—주체99(2010)》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소형전지 《당기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으시여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켜주시고 혁명대오의 철통같은 단결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의 구호가 있는 묶음전지에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과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속에 계시며 우리 당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집대성된 미술작품들이 반영되여있다.

개별우표에는 백승만을 떨쳐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기가 휘날리고있다.

기념우표들은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새겨주며 당창건 65돐을 조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국가도서전람회 개막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국가도서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신문을 보시는 사진이 전람회장에 모셔져있다.

출판사관들과 보급망판 등으로 꾸려진 전람회장에는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한 출판물들가운데서 2만여종에 3만 1 000여부의 도서와 잡지들이 전시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관에는 《김일성전집》, 《김일성저작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선집》,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등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여있다.

금성청년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소설로 옮긴 도서들,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령도업적을 수록한 총서작품들, 《김정일열풍》,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을 비롯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과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할 도서들이 있다.

《조선로동당정책사》, 《리조실록》, 《세계과학대사전》, 《7개국어과학기술용어사전》, 《콤퓨터일화》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들, 사진교재들, 각종 도서들과 잡지들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외국문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관들에 전시되였다.

공업출판사, 농업출판사, 철도출판사, 체육출판사들에서는 도서 《보이라도해》,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위용》, 《생물학독본》,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수송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운동과 장수》, 《조선체육년감》 등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과 기술실무수준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전람회에 내놓았다.

총련관과 보급망판에는 《총련의 자랑찬 로정》, 《애국애족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각종 도서, 잡지들과 《김일성주석을 회고하여》, 련속문고들인 《20세기의 인민의 수령들, 김일성》, 《20세기의 인민의 수령들, 김정일》, 도서 《조선의 지도자 김정일》 등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한 도서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성과를 소개한 도서들이 전시되여있다.

개막식이 5일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 출판보도부문 기자, 편집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양형섭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열린 이번 도서전람회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사상리론적공적을 높이 칭송하고 우리 나라의 저작재부를 내외에 널리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사상전선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이 5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중앙열망사업소 로동자 오남웅, 형제산구역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황청미,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차진혁, 중구역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길명철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고있는 속에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운명개척과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이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킬 의지를 지니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수십성상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당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늘 우리 당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혁명의 참모부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선도해나가는 가장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자기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우리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선군시대 청년전위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간직하고 당과 혁명,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들고 경공업과 농업부문,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서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대혁신, 대비약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우리 청년들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고 하면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5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서성구역녀맹위원회 위원장 백영란, 동대원구역 동대원2동 초급녀맹위원장 정추단, 대동강구역 문수2동 녀맹원 리광실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전당, 전군, 전민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희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강성대국건설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절세의 위인들을 령도의 중심에 모시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왔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려명기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시였으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데 이어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강위력한 당,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당건설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당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전환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세련된 정치적참모부,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위용떨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당의 대고조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모든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최고대표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시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 만세!》가 랑송되였다.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경축공연 진행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공연이 5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있었다.

직맹일군들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민족사적대경사에 이어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 크나큰 기쁨이 장내에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 《당은 장군님의 품》, 녀성독창 《그 품은 하나》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선군혁명의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노래련곡 《주체철 제일이야》, 《온 나라의 대경사로세》, 《돌파하라 최첨단을》, 《그이의 리상》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로숙하고 세련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인민의 행복이 꽃펴나는 선군조선의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음을 깊이 절감하게 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찬란한 래일을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려는 우리 로동계급의 굳은 의지를 훌륭히 형상한 녀성독창과 방창 《장군님 따르는 마음》, 혼성2중창 《우리는 로동자부부》, 시와 합창 《조선로동당 만세》를 비롯한 종목들도 펼쳐졌다.

경축공연은 관람자들이 한없는 사랑과 믿음, 인덕정치로 인민을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가다듬게 하였다.

혁명적기백과 열정에 넘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재중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5일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조국통일과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이날 리오룡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5일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상월, 왕효명가족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전국근로자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전국근로자들의 예술소조종합공연이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선군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모여온 관람자들로 차넘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평양시내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대화시 《백두산3대장군과 당기》, 녀성2중창 《수령님 같으신분 세상에 없습니다》, 제창이야기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북제창이야기 《곧바로》, 가야금병창 《모란봉 닐리리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에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으며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기악과 노래 《당은 장군님의 품》, 시와 이야기 《어머니없이 우린 못살아》, 남성독창 《노래하라 전선길아》 등의 종목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을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온 나라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며 전설적인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이 땅우에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였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인민의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며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도록 대중을 고무하는 남성중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시이야기 《생명선》, 노래이야기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독연과 방창 《땅과 농민》도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날로 꽃펴나는 군중문화예술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시와 합창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로 끝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도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황도식 재일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축하단을 맞이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사,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도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상월, 왕효명가족들이 5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상월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왕효명가족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 도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백두산소조 책임자 마누엘 가르씨야 보따야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오. 멍흐체체그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다르한 올도지부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에스빠냐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몽골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다르한 올도지부대표단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일행 도착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림민식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과 일행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일행

수리아림시대리대사 연회마련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쑤헤일 하이다르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5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수리아친선협회 위원장인 리룡남무역상, 리창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바샤르 알아싸드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수리아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국번영의 밑뿌리가 될 숭고한 애국의 한마음안고

영웅의 금메달은 오늘의 실적으로 더욱 빛난다

3중영예의 붉은기 평양승리중학교 교장 로력영웅, 인민교원 김석렬동무

후대를 위해 바친 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잊지 않는다.

걸어온 인생길우에 가지가지의 위훈담을 묻어둔채 지난날도 오늘도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국땅곳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어느덧 일흔고개를 바라보지만 후대교육사업에 진심을 바쳐가고있는 평양승리중학교 교장 김석렬동무도 바로 그러한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회가 없이 떳떳하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이다.》

로력영웅, 인민교원, 선군시대 공로자!

교육자라면 누구나 지니고 싶어하는 값높은 명예를 지녔건만 그는 그 부름에 전혀 익숙되지 못했다. 그렇게 불러주면 오히려 쑥스러워한다.

해놓은 일보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에 그는 지금도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찬 보폭을 내디디고있다.

⁂ ⁂

교육자라면 누구나 45분 수업시간을 중시하지만 교장사업을 하면서부터 거기에 대한 그의 관심은 각별했다.

언제인가 그가 어느 한 신임교원의 수업을 참관했을 때였다.

소유하고있는 지식은 많았으나 학생들을 충분히 리해시키지 못하는것도 문제이지만 1분 먼저 수업을 끝낸것이 마음에 걸렸다.

수업후 그는 신임교원을 찾았다.

《군인이 습격전투시간을 1분 단축했다면 평가받겠지만 교원의 수업시간단축은 금물이요. 선생이 단축한 그 1분때문에 후대들의 지적발전에 빈틈이 생길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조국의 전진이 떠질수도 있다는것을 한번 생각해봤소?》

낮으나 엄한 질책이였다.

그날부터 김석렬동무는 자기가 솔선 학생이 되여 그 신임교원의 수업을 받으면서 사소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부족점을 하나하나 일깨워주었다.

교장을 상대로 수십차례의 해보기수업을 하는 과정에 그 교원은 점차 담도 커졌고 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교수를 할줄 아는 방법도 터득하였다.

그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교수경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그 교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김석렬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45분수업을 위해선 사전에 그렇듯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오. 필요하다면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생을 다 바칠 각오를 가져야 진짜배기 교육자가 될수 있소.》

이런 깨끗한 마음을 지녔기에 그는 갓 교단에 선 교원은 물론 비교적 오랜 교육년한을 가진 교원들도 자질향상을 꾸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학교사업에서 무엇을 시급히 대책해야 하는가에 대해 늘 사색을 집중하군 하였다.

(중앙이나 도, 시에 있는 1중학교와 대등하게 실력을 끌어올릴수 없을가?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머리속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그는 학교에서도 하루빨리 콤퓨터에 의한 원격교육을 진행할 결심을 하였다.

원격교육설비를 자체로 갖추고 모든 교원들을 그에 맞게 준비시킨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교원들을 준비시키고 설비들을 다 설치한 다음에는 홈페지자료들을 다 받아볼수 있게 많은 수고를 기울였고 교실들마다에서 진행되는 원격강의참관을 수십번이나 하였다.

록화강의때 영상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 음성은 잡음이 없이 들리는가도 재삼 확인해보고 학생들과 원격강의교원과의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 맨뒤에 앉은 학생들이 화면에 현시되는 자료들을 잘 보게 하자면 원격강의칠판에 마지크로 큼직큼직하게 써야 한다는것, 마이크를 리용하여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얼마만 한 거리를 보장해야 한다는것 등도 찾아내여 강의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학교에서는 교실과 분과실, 실험실습실 등 수십개의 방들에서 일제히 원격강의를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인재육성을 위해 바치는 이런 헌신적인 투쟁이 있어 학교는 지금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수십차례나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고 전국의 교육단위에 일반화할 본보기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전국적인 교수방법토론회에서 한국녀교원이 최우수교원으로 평가되고 학교의 학생이 전국적인 알아맞추기경연에서 2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교졸업생들의 상급학교입학률은 수재교육단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자신을 깡그리 바쳐 좋은 밑거름이 되였기에 교원들도 자랐고 학생들도 성장한것이다. 이제는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도 자기 궤도에 올랐는데 좀 쉬염쉬염 일하라고 옆에서들 권고하면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뇌인다.

《같은 땅에 같은 곡식을 심으면서도 농사군이 왜 밑거름과 덧거름을 해마다 주는것 같습니까. 그리구 왜 다음해에 쓸 거름을 미리미리 장만하고… 학생들도 해마다 졸업하는데 그 다음번 학생들을 위해 자신을 더 좋은 밑거름으로 다시 준비해야 하는게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원격교육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 할 때였다. 많은 교원들속에서 야외공사는 그럭저럭 할수 있지만 실내공사는 소음때문에 학생들의 현행학습에 지장을 줄수 있으므로 부득불 기다렸다가 방학기간에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물론 현실적조건을 고려해서 그러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일 자기 자식이 지금 우리 학교의 졸업반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소?

공사를 늦게 끝내는것만큼 그들에게는 원격교육의 덕을 볼 시간이 적어질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된 심정으로 달라붙읍시다.》

안타깝게 호소하는 그의 말은 교원대중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돌아간 후 밤마다 전체 교직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한달반동안에 실내공사를 끝내였다. 야간작업과정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여야 하는가를 모두에게 새삼스럽게 느끼게 한 나날이기도 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교원들에게도 그는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예능분과장 박영순교원이 한 학생을 꾸준히 이끌어준 사실을 알고 구역의 교육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험토론을 하도록 한 일이며 국어분과장 리정희동무를 비롯한 교원들이 부모들의 청춘시절을 통한 학생교양사업을 잘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더 광범하게 진행하도록 적극 밀어준 사실을 비롯하여 교원들속에서 긍정적인 싹을 발견하게 되면 소중히 여겨 널리 소개해주고 내세워주고싶어 은근히 왼심을 써왔다.

교원들이 때로 마음속번민이나 생활상고충을 안고 자기를 찾아오면 석렬동무는 절대로 그 대책을 위로해주는 몇마디의 말로 굼때지 않았다.

이렇듯 석렬동무에게는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었다.

정말이지 그에게는 현재 교정에서 배우는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도, 지식을 가르쳐주는 교원들도 다 자기의 친자식이였고 혁명의 길을 함께 가야 할 동지였다.

그에게 있어서 학교는 곧 자기 집이였고 정다운 삶의 보금자리였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더 훌륭하게 키울수 있을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원들을 더 잘 준비시키고 보란듯이 내세워줄수 있을가?… 그의 머리속에는 자나깨나 이런 생각들이 꽉 들어차있다. 이 모든 사색의 출발점이 바로 사랑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 교단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더우기 그 사랑을 가볍게 말로 하지 않았다.

교장사무실에 놓여있는 교직원들의 생일일람표와 몇해전부터 달마다 꽉꽉 차려주고있는 생일상들도 바로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언제인가 가정부인인 진미화교원이 자기에게 차례진 생일상을 저녁에 고스란히 집에 들고간적이 있었다.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도 충격이 커서 집에서 더 잘 차려준들 이 성의에 비하겠는가고 하면서 학교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여왔다.

그런 날이면 학교자체로 건설한 수백㎡의 축사와 후방기지를 돌아보면서 김석렬동무는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리군 한다. 그리고는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수 있을가 하고.

이처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온넋과 지혜와 땀을 바쳐 그가 한 모든 사업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준다. 사랑은 빈말없는 실천으로, 진심어린 행동으로 하는것이라고…

⁂ ⁂

사업과 생활의 어느 측면을 보아도 그는 여전히 한본새이다.

간혹 일하기가 힘들지 않는가고 누가 물으면 석렬동무는 이렇게 말하군 한다.

《변변히 해놓은 일도 없는 저를 우리 장군님께서 영웅으로 내세워주셨는데 있는 힘껏 노력하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그러한것처럼 그도 역시 영웅메달을 가슴에 달고 나서는적이 별로 없다. 그러나 교육자영웅의 금메달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데 바치는 오늘의 실적으로 하여 지금도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뿜고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있다.

백 성 근

불타는 충정으로 이어진 180일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연구사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교수교양사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어느날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커다란 흥분에 휩싸였다.

어느 한 돼지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곳 교원, 연구사들이 연구완성한 공장관리운영의 콤퓨터화와 돼지사양관리에 좋은 수의약품들을 몸소 보아주시고 분에 넘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던것이다.

온 교정이 기쁨에 설레였다. 서로 부둥켜안고 격정을 터뜨리는 교원, 연구사들을 바라보는 학장 김영수, 부학장 김광철동무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들었다.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오늘이였던가. 위대한 장군님께 잠시나마 기쁨드리기 위해 멀고 험난한 과학탐구의 길도 웃으며 걸어온 이들이였다.

공업적돼지사양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든든한 배심과 결의에 넘쳐 공장으로 떠나던 교원, 연구사들의 열정넘친 모습들이며 가장 합리적인 배합먹이비률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과 론쟁을 벌리던 날과 달들, 집체적지혜와 경험을 합쳐가며 수십부에 달하는 돼지기르기문답집을 집필하던 탐구의 낮과 밤들, 수십수백리길에 슴배인 불타는 열정과 창조의 땀방울들…

공장관리운영의 콤퓨터화 완성과 수의약품개발에 바친 180일, 무수히 흘러간 날과 달들에 이들의 가슴속에 차넘친것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달성하겠는가 하는 충정의 한마음뿐이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못 잊어 추억하는 이야기가 있다.

새로 일떠선 공장실정에서 사양관리에 좋은 수의약품개발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원 박성근동무는 이 과제를 스스로 맡아안고 공장으로 내려갔다. 그는 공장일군들과 인사도 나누기 전에 뜻밖의 정황에 부닥치게 되였다. 여러마리의 돼지들이 원인모르게 설사를 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긴급대책을 세웠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공장일군들의 얼굴은 심각해지고 관리공들은 너무도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였다. 박성근동무는 돼지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방도는 있었다. 그것은 그가 연구해온 수의약품을 사용하는것이였다.

수의약품제제를 위해 그길로 떠나려는 그를 공장일군들이 막아나섰다. 수백리길이였던것이다. 가더라도 날이 밝은 다음에 떠나라는 일군들의 권고를 조용히 뿌리치며 그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인차 돌아오겠으니 그때까지 돼지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떠나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속에 마련된 한마리한마리의 돼지들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였던것이다.

3일후 수의약품을 들고 공장에 들어서는 그의 땀배인 얼굴을 바라보는 공장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아직은 그 교원의 이름도 성격도 몰랐지만 그의 심장속에 무엇이 불타고있는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가 제조한 수의약품은 인차 효력을 나타냈다. 돼지들이 다시 정상상태로 돌아가자 관리공들은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돼지공장관리운영의 콤퓨터화와 수의약품개발에 바쳐진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노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밖에도 많다.

수백리길을 오고가며 콤퓨터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준 부학장 김광철동무, 낮과 밤이 따로없이 공장관리운영의 콤퓨터화에 필요한 프로그람작성에 불타는 열정을 바쳐간 김철수동무, 공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관리공들과 수의사들의 선생이 되여 이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여준 강좌장 박사 차승호, 실장 김명도동무들…

나라의 축산업발전에서 자신들이 지닌 책임성을 깊이 간직하고 과학연구활동에 불타는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교원, 연구사들을 모두가 도와나섰다. 여러차례 공장에 내려가 교원들과 지혜를 합치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준 대학일군들, 공장의 보배인 이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기 위해 남모르는 지성을 기울인 취사원들이며 연구사업을 위해 잠시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휴식조직도 해준 공장일군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축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여 장군님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교원, 연구사들이기에 180일이라는 기간에 초행길이나 다름없던 돼지공장관리운영의 콤퓨터화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사양관리에 효능높은 수의약품들을 수많이 개발할수 있었다.

소사양관리의 과학화실현에 의의있는 프로그람을 완성하여 하루소증체률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높인 박사원 원장 박사 리기호동무, 타조알깨우기의 과학화를 실현한 강좌장 김해욱동무를 비롯하여 대학의 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이런 충정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좋은 연구성과들을 수많이 이룩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를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일 마음 안고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연구과제를 맡아 해제끼고있다.

돼지질병을 제때에 진단할수 있는 프로그람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새로운 형의 건조기설계를 성과적으로 끝낸 축산공정학강좌를 비롯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달성한 과학연구성과들이 속보판이 모자라게 나붙고 전국각지의 여러 단위들에서 호평과 부탁의 전화들이 련이어 걸려오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탐구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하여 10월의 축전장에 떳떳하게 들어서자.

평성수의축산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기술의 전초병이 될 의지를 안고 날과 날들을 불타는 충정으로 아로새기며 오늘도 전국각지에 련이어 일떠서는 축산기지들을 찾아 과학탐구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은 남

현실에서 은을 내는 연구성과를

남포농업대학에서

최근 남포농업대학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는 밀폐식종합탈곡기 《남농》호들은 이 대학 교원학자들이 연구제작한 능률높은 탈곡기이다.

대학의 교원학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밀폐식종합탈곡기의 성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줄기찬 연구사업을 벌리였다.

이 나날에 이들은 《남농1》호에 비하여 높이가 퍽 낮고 너비가 작은 소형화된 밀폐식종합탈곡기 《남농3》호를 개발하여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인민과학자 정화섭동무와 문능찬동무를 비롯한 간석지농업연구소 농업기계화연구집단이 만든 《남농3》호는 종전의 탈곡기들에 비하여 그것을 만드는데 자재가 훨씬 적게 들고 적은 로력과 전기를 쓰면서도 시간당 탈곡능률은 같거나 더 높을뿐아니라 전기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도 28HP뜨락또르의 동력을 리용하여 작업을 계속할수 있어 현장들에서 호평이 대단하다.

대학의 교원학자들은 또한 적은 비료조건에서 간석지논벼소출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간석지농업연구소 소장 공훈과학자, 교수, 박사 김봉일동무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평안남도와 남포시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가 간석지논에 알맞는 논벼품종을 선택하고 새로운 중기중점시비방법과 큰모에 의한 늦은 모내기방법 등 여러건의 과학연구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모기르기로부터 수확에 이르는 간석지농사방법과 영농공정을 새롭게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비료 대 소출비를 1:15정도로 올림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정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전국의 간석지논들에 확대도입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이 연구성과는 지난해에 국가과학기술성과로 등록되였다.

실장 박정삼동무를 비롯한 분석집단이 연구개발한 식물성장자극제도 현장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교원학자들은 식물체가 빨리 자라도록 자극하는 식물성장자극제를 미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낼수 있는 공정을 확립하고 생산기지를 자체로 꾸리였다.

여러 단위들의 도입경험에 의하면 이 식물성장자극제는 감자의 잠깨우기에 매우 좋으며 모기르기를 비롯하여 농작물의 여러 생육단계에서 성장촉진제로서의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 대학의 최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긴장한 전기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이다.

학장 김기덕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정철문동무를 비롯한 교원학자들은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후방경리사업 등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물질을 리용하는 가스발생발동발전기를 개발하였다.

이 성과는 지난 4월에 진행된 성적인 보여주기에서 높이 평가되였다.

교원학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큰 발전능력을 조성하여 기숙사난방까지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당조직의 지도밑에 더욱 활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남포농업대학 교원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은 보다 훌륭한 열매를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려 명 희

우리 군대는 미군측의 차후 태도를 주시해볼것이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제6차 판문점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 진행

【판문점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제6차 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이 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우리측은 먼저 지난 접촉에서 새롭게 내놓은 검열단파견제안에 대한 미군측의 검토결과를 료해하였다.

미군측은 우리측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하여 그 어떤 연구나 대안도 없이 저들의 《조사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조미군부장령급회담부터 개최하자는 부당한 주장을 내대면서 문제토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였다.

우리측은 미군측의 불손하고 무례한 태도를 엄하게 추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남조선괴뢰들의 날조자료를 무턱대고 비호두둔한 미군측의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추호도 인정할수 없다.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밝힐데 대한 쌍방합의에 부합되게 선조사, 후회담개최원칙을 지키는것은 문제해결의 초보적인 순차인 동시에 우리측의 변함없는 립장이다.

만천하에 그 허위성과 기만성이 날날이 드러난 일방적인 날조자료를 우리에게 인정시키려고 하는 그자체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쌍방합의를 뒤집어엎는 비렬한 배신행위로 된다.

미군측이 무지하고 졸렬한 수법으로 사건해결에 제동을 걸면 걸수록 이 사건에 개입되여있는 자기의 검은 정체만을 백일하에 드러내게 될뿐이다.

그러나 미군측은 쌍방이 지금까지 진지하게 협의하여온 공동조사문제마저 부정하면서 저들의 《조사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개최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한사코 우겨댔다.

우리측은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해명하려는 드팀없는 의지로부터 검열단명칭문제를 비롯하여 현지조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방안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미군측이 우리 검열단의 사건현장검증과 군사기지사찰문제를 받아들이기 꺼려하고있는 조건에서 사건해명에 필요한 어뢰추진체, 어뢰설계도와 같은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쌍방이 정밀분석을 한 다음 조미군부장령급회담을 열고 《천안》호사건진상을 론의해보자는 획기적인 대안까지 포함되여있다.

우리측의 대범한 조치로 문제토의에서 제기되고있던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된 조건에서 미군측은 사건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리유도 없게 되였다.

막다른 처지에 빠진 미군측은 말문이 막혀 모대기다가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우리측은 《천안》호사건의 진상해명에 필요한 《물증》들을 판문점에 가져다놓고 공동검증해보자는 최종제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세계앞에 미군측의 진속이 드러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군대는 미군측의 차후 태도를 엄격히 주시해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다음접촉을 10월 20일경에 가지기로 하였다.

총련의 조선학교 직외강사에게
예술학박사학위 수여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총련의 조선학교 직외강사 리승옥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예술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전하철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리승옥에게 예술학박사학위가 수여되였다.

재일동포 리렬리선수 세계선수권 쟁취

세계프로권투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왕자

【도꾜 10월 4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체육인인 재일동포프로권투선수 리렬리가 2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세계권투협회(WBA) 슈퍼반탐급선수권쟁탈경기에서 왕자인 타이의 푼사왓트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선수권을 쟁취하여 세계프로권투계의 왕자로 되였다.

총련에서 민족교육을 받은 프로권투선수가 세계패권을 쟁취한것은 세계권투리사회(WBC) 슈퍼플라이급에서 홍창수선수가 배출된 후 두번째이다.

이번에 세계프로권투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리렬리선수는 지난 2월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국내 페자급왕자결정전에서 일본선수를 타승하고 일본프로권투계의 왕자로 명성을 떨치였다.

고덕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총련일군들, 재일동포들 그리고 프로권투애호가들, 일본인민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리렬리선수와 42전 41승 1패라는 전적을 가지고있는 타이선수사이의 경기는 매우 치렬하였다.

필승의 신심과 용맹을 안고 경기에 출전한 리렬리선수는 경기시작부터 적극적인 공격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경기를 대담하게 운영하였다.

그는 상대방선수가 접근전으로 근거리에서의 타격을 시도하면 련결타격과 강한 곧추치기와 올려치기, 완강한 방어 등 자기의 특기로 제압하고 수세에 몰아넣으며 회전마다에서 좋은 성적을 련속 기록하였다.

리렬리선수가 앞뒤좌우로 재빨리 이동하면서 타이선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며 평시에 련마한 다양한 높은 기술수법들을 보여줄 때마다 동포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열광적으로 응원하였다.

경기에서 3:0의 판정으로 리렬리선수의 승리가 결정된 순간 관람석의 동포들속에서는 경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장내는 환호성으로 차넘치였다.

경기가 끝난 다음 리렬리선수는 자기를 내세워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시울을 적시면서 《조국이 지켜보고 동포들의 뜨거운 응원이 있어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다. 이 순간부터 우승자의 영예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대학교에서 민족교육을 받으며 자란 리렬리선수가 세계프로권투계의 왕자가 된것은 조선민족의 자랑이다, 조선의 이름으로 영예를 떨친것은 의의가 크다, 리렬리선수가 거둔 승리를 통해 조선사람으로서 참으로 큰 힘을 얻었다,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영예감이 더욱 높아졌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일본땅에서 세계프로권투계를 뒤흔든 리렬리선수의 자랑찬 승리는 주체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장거로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조국의 천만군민과 재일동포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도이췰란드특명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평양 10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국경절에 즈음하여 게르하르드 티데만 주조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5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 오룡철 무역성 부상, 조선도이췰란드친선협회 위원장인 홍선옥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도이췰란드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 대통령 크리스티안 울프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도이췰란드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총련의 대표단들과 방문단 도착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행사에 참가할 권경애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대표단, 강두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본부위원장대표단, 리명견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지부위원장대표단이 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리오룡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평양에 도착하였다.

유엔총회 제65차회의에 참가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귀국

유엔총회 제65차회의에 참가하였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대표단을 마중하였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 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 귀국

한누 하르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대표단이 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덕정치로 일심단결을 이룩한 당

불레찐 발행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꼴롬비아강계주체사상연구소조에서 9월 26일 불레찐 《인덕정치로 일심단결을 이룩한 당》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에서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덕정치방식을 창조하고 그를 구현하여 일심단결을 이룩한 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하에 조선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조직적 전일체를 이루고있다.

김정일총비서의 정치리념은 이민위천이다.

이 리념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그를 구현한 인덕정치를 사회주의정치방식의 하나로 내세웠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정권을 비롯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였으며 일군들이 인민들과 늘 고락을 같이하도록 하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 헌신적복무정신으로 일관된 조선로동당의 정치는 인민들속에서 령도자에 대한 지지와 신뢰심을 두텁게 하고 누구나 한마음한뜻으로 령도자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하였다.

그 과정에 조선에서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조직사상적 통일체를 이룬 일심단결이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밑에 조선에서는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적순결체로 공고화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총비서께서 심화발전시키시는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상이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주체사상이야말로 자기들을 위한 사상이고 그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자기들의 행복과 휘황한 미래가 담보된다는것을 심장깊이 체득한 조선인민은 누구나 주체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로 되였다.

조선에서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선군사상이 온 사회에 꽉 들어차고 누구나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견결히 받들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적환경에서 사회의 사상적통일이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하에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도덕의리적단합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동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가 곧 단결이며 동지애가 진실하고 뜨거울수록 일심단결이 더욱 순결하고 공고해진다고 간주하신다.

그이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과정은 그대로 동지애의 발현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그이께서는 군인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뜻과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로 여기시고 끊임없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시찰로 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며 이끌어주고계신다.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으시고 인민의 행복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는 김정일총비서의 숭고한 풍모는 조선에서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로정에는 령도자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김정일총비서의 크나큰 도량과 포옹력은 거대한 견인력으로 전체 조선민족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고 통일조선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것으로 국제사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는 조선의 일심단결, 정녕 그것은 조선로동당의 인덕정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 ⁂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주체사상연구소에서 불레찐 제65호를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당창건기념탑사진과 함께 실었다.

불레찐은 글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있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 역시 나라의 현실적요구와 자주적인간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치방식이다.

그이께서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고계신다.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놓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조선에서 인민의 리익이 얼마나 우선시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최근 개건된 평양대극장과 대동문영화관, 청류관, 개선청년공원 등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불레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이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이끄시는데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들의 생활형편부터 알아보시며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친어버이심정으로 돌보아주신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선군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였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향도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선군시대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도록 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민단결을 이루고 강력한 정치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이며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의 당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있다.

혁명적당건설의 대가이시며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존엄높은 강력한 당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것과 당창건 65돐을 축하하여 먀마 양곤시 시장 겸 개발위원회 위원장 아웅 테인 린이 9월 3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앞두고 9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선군혁명위업을 완수해나갈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운명개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공고히 하였으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강성대국건설의 새시대를 향도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선군시대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도록 하시여 조선로동당을 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민단결을 이루고 강력한 정치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혁명적당이며 선군정치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이다.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와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혁명적인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조선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김일성주석의 당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에 떨치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고있다.

혁명적당건설의 대가이시며 세계정치원로이신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자주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존엄높은 강력한 당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

로씨야에서 진행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을 규탄하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9월 19일 로씨야 싸라또브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로씨야 싸라또브주체사상연구반제협회 위원장과 협회성원들,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 싸라또브주체사상연구반제협회 위원장 강 이고리는 리명박역도가 대미굴종과 반공화국대결정책에 매달려 자주통일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를 로골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남조선당국은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있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핵을 가진 북과는 통일할수 없고 북남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고있다.

역도는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에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을 가상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리고있다.

리명박《정권》은 북으로부터 선핵포기를 양보받으려고 하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미국의 쓰라린 교훈을 응당 고려해야 할것이다.

리명박역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의 몽매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역도는 남조선뿐아니라 전조선을 외세에 팔아먹으려 하고있다.

집회참가자들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환경보호문제에 대해 언급

에티오피아대통령 기르마 월데기오르기스가 9월 28일 수도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환경보호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서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5개년계획을 작성한데 대해 밝히고 그는 전체 인민이 계획수행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의 생체실험만행 규탄

파떼말라대통령 알바로 꼴롬이 2일 자기 나라 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생체실험만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미국이 지난 1946년부터 1948년까지의 기간에 매독균에 대한 페니실린효과를 검증한다는 미명하에 파떼말라의 감옥과 병원들에 있는 수감자들과 환자들에게 매독균을 인위적으로 감염시키고 항생제의 반응정도를 관찰하는 생체실험을 감행한 자료가 최근에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락인하였다.

이보다 앞서 1일 이 나라 정부대변인은 미국의 만행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이라크로부터의 외국무력철수 주장

이란내무상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로부터의 모든 외국무력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라크의 안전은 곧 지역의 모든 나라들의 안전이라고 하면서 그는 외국무력이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 이 나라에서 절대로 안전이 보장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라크에서의 공고한 안전과 평화는 외국무력이 아니라 이 나라 인민들의 단결에 의해 이룩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지역나라들이 이라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호소하였다.

서방의 제재책동 비난

짐바브웨중앙은행 총재가 1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제재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의 제재조치가 비법적인것으로서 짐바브웨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모든 짐바브웨인민들은 통일정부의 지휘밑에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서방나라들에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수출 증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8월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 증대되였다. 1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공업생산 장성

브라질에서 올해 첫 8개월동안에 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 장성하였다. 1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전염병방지노력

—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에이즈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9월 28일 세계보건기구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발전도상나라들에서 525만명의 에이즈환자들을 치료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120만명 더 늘어난것이라고 한다.

— 잠비아에서 말라리아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최근 정부는 피해가 심한 국경지역들에서 말라리아방지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그에 따라 이곳 주민들에 대한 모기장공급과 위생선전사업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에쥪트의 항구도시

미해군 원자력잠수함 일본에 기항

미해군 원자력잠수함 《미시간》호가 9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의 요꼬스까미해군기지에 기항하였다.

미해군은 순항미싸일 《토마호크》를 탑재할수 있도록 개량된 《미시간》호의 기항이 서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방전개의 일환으로서 지역에서 미국의 최신형잠수함대의 능력을 과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공언하였다. 《미시간》호의 기항은 현지주민들속에서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예산적자 증대, 경영형편 악화

— 에스빠냐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예산적자가 348억 4 900만€에 달하였다. 9월 27일 이 나라 정부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 도이췰란드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1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9월에 제작업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8월에 비해 3.1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집없는 세대 증가

미국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인 정책과 경제위기의 후과로 집없는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정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밝힌데 의하면 지난 2년동안에 이 나라에서 집없는 가정이 2007년에 비해 3만 9 000세대 증가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폭풍피해

저메이커에서 9월 29일 열대성폭풍이 휩쓸어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를 동반한 폭풍에 의한 큰물과 흙사태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다리들이 무너지고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긴급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흙사태피해

메히꼬에서 흙사태가 계속 발생하여 피해가 확대되고있다.

9월 29일 치아빠스주의 아마딴시에서 흙사태가 일어나 12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4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많은 살림집들이 파괴되였다.

현지에서 구제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파렴치성의 극치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제15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일본이 자기의 특유한 파렴치성을 또다시 드러냈다. 여기에서 일본대표는 《랍치문제》를 입에 올리면서 《피해자들중 일부만이 귀환했다.》느니, 《일본내 다른 실종사건관련자들이 랍북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느니, 《랍치문제》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고 기염을 토하며 우리를 걸고들었다.

도적이 제발저려한다고 과거 일제의 반인륜범죄가 엄청난지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 덮어버리며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 일본만이 할수 있는 생억지이다. 일본이 이미 백지화된 《랍치문제》를 가지고 국제무대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하여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다.

원래 일본은 속통이 바르지 않고 량심과 신용이 없는 나라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우리와의 회담탁에서는 《리해》요, 《사의》요 뭐요 하면서 갑삭거리다가도 돌아앉아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싶게 수염을 내리쓸군 하였다.

《랍치문제》도 그렇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랍치문제》를 물고늘어지며 우리에게 계속 생트집을 걸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랍치문제》를 미끼로 정치적잔명을 부지하는것과 동시에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광범한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려보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랍치문제》에 《관심》이 있는것처럼 내색하여 민심을 사 저들의 오작정치의 허물을 가리우는것과 동시에 일본을 그 무슨 《피해자》로 둔갑시켜 과거범죄의 책임을 모면하자는것이다. 상전인 미국까지도 과거청산에 나설것을 일본에 요구하는 판이니 일본반동들이 무슨 궁냥인들 안하겠는가.

우리는 《랍치문제》를 가지고 계속 못되게 놀아대는 일본의 역겨운 추태에 대해 일일이 따질 생각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반동들이 과거 일제가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노예살이를 강요하다 못해 마구 학살한 야만적인 죄행에 대해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여 제편에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를 《가해자》로 몰아대려고 기를 쓰고있는데 대해서는 용납할수 없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이 《랍치문제》를 거들면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려 하는데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다시금 명백히 해두건대 《랍치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더 론할 생각이 꼬물만큼도 없다. 일본반동들이 이미전에 령으로 된 《랍치문제》보따리를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찾아다니며 그 무슨 《협력》과 《지지》를 구걸하다 못해 나중에 국제무대에서까지 소란스럽게 떠드는것은 스스로 일본의 철면피성과 도덕적저렬성을 더욱 드러내보여줄뿐이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도 많다. 얼마전에 일제강점시기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마소처럼 혹사당하다가 현지에서 죽은 5 600여명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사망기록이 공식확인되였다. 학계에서는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수를 70만~100만명으로 추정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이러한 사실은 묻어두고 공식확인되지도 않은 몇 안되는 일본인행방불명자들을 터무니없이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과거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한 특대형반인륜범죄와 대치시켜 유야무야하려 하는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간악한 조선인강제련행, 유괴, 랍치, 학살범죄에 대해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어느때든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이 비렬하게 오그랑수를 쓰면서 과거청산을 계속 회피한다면 차례질것은 도덕적파멸뿐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기 할바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조택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근 중국 길림성에서 230.4㎞에 달하는 송원—쌍료고속도로건설공사를 끝내고 개통하였다. 한편 호북성에서는 얼마전 길이가 3 420m에 달하는 제8무한장강대교건설공사가 시작되였다.

중국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는 교통운수망의 확장과 현대화는 나라의 번영발전과 중국특색의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있다.

지난 시기 중국에서는 광활한 지역에 널려있는 도시와 주민지구들을 련결하는 교통운수망을 형성하는것을 사회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의 하나로 여기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왔다.

철길과 자동차도로 등이 많이 늘어나 각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1949년 새 중국이 창건될 당시 전국적으로 기차가 달릴수 있는 철길은 동북지방과 연해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1만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그 길이가 8만 6 000㎞로 늘어났다.

중국에서 최근년간에 진행된 철도개건사업에 의해 많은 복선철도, 전기철도, 고속철도들이 생겨났다. 현재 고속철도길이는 6 552㎞에 달한다.

한편 자동차도로는 건국초기의 8만여㎞로부터 382만 8 000㎞로 늘어났다. 그중 고속도로의 길이는 6만 5 000㎞이다.

수상운수발전에도 큰 힘을 넣고있는 중국에서는 항들을 대대적으로 건설 및 개건하고 배길들을 정리함으로써 항들에서의 년간 화물처리량을 훨씬 늘이였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가운데는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성과들도 있다.

지난 9월 중국의 주천위성발사쎈터에서는 《원격탐지위성—11》호를 쏴올려 예정된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과학실험과 국토자원조사, 농작물수확고판정, 자연재해방지 등 사업에 리용되게 될 이 위성은 《장정—2》호(정) 운반로케트에 실려 발사되였다. 한편 2개의 《피성1》호(A) 위성도 발사되였다.

지난 6월 중국의 과학기술집단은 네번째 북두항행유도위성을 쏴올려 자기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시켰다.

중국에서는 현재 측량, 전신, 수리, 수산업, 교통운수, 재해방지 등 여러 분야에서 북두항행유도위성체계를 리용하고있다고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오늘 중국은 운반로케트, 위성통신 등 현대과학기술발전수준에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들어섰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127개의 과학연구쎈터들이 건설되고 기술혁신사업을 통해 수많은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것은 그것을 실증해준다.

중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교육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새 중국이 창건되기 전에는 인구의 80%이상이 문맹자였다. 그후 중국당과 정부의 옳바른 시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되였다.

중국에서 2008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소학교학령어린이입학률과 초급중학교학생입학률은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1만 4 800여개의 중등직업학교들이 세워져 운영되고있다. 새 중국 창건초기에는 약 200개의 대학과 전문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수가 2 300여개에 달한다.

오늘 중국인민은 호금도동지를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1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은 형제적중국인민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정착촌건설의 완전중지 요구

팔레스티나민족당국 고위관리 나빌 샤아스가 최근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완전히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정착촌건설이 중지되지 않는한 이스라엘당국과의 평화회담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은 정착촌건설문제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그 어떤 회유적인 타협안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정착촌건설은 무조건 완전히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안으로부터 썩어가고있는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번창한것 같이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안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각종 모순과 사회악으로 하여 더욱 썩어가고있다. 그것은 미국사회가 늘어나는 폭력범죄와 마약사용자, 실업자들 그리고 교육과 보건제도 등의 취약성으로 하여 공포와 절망의 분위기에 휩싸여있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는 총기류에 의한 범죄가 계속 성행하고있다.

《계속 일어나고있는 폭력범죄는 미국의 악몽으로 되여 다른 범죄률을 훨씬 릉가하고있다. 도시의 많은 구획들에서는 걸어서, 지어 차를 타고서도 통행할수 없는 형편이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외출하기를 꺼려하고있다.》

이것은 몇년전 미국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실린 글의 한토막이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 한 대학에서 녀성교수가 변론도중 심사자들을 쏴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사건을 발생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여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국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나돌고있는 총기류는 2억 5 000여만정을 헤아리고있다. 2008년 한해에 미국인들이 구입한 총탄은 90억발에 달하였다. 미국의 한 신문은 총기류범죄로 해마다 약 3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개탄하였는가 하면 한 사회학자는 총기가 《미국문화의 핵》으로 되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다.

미국에서는 청소년들까지 총기를 들고 범죄의 길에 나서고있어 사람들에게 불안과 절망감을 더해주고있다. 어린 학생들이 책가방에 권총 등을 넣고 등교하고있다. 이로 하여 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지고 선생이 자기 학생의 총에 맞아 교단에서 쓰러지는것과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정부가 10만명의 경찰들을 《범죄와의 투쟁》에 동원한다는 등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있으나 그것으로 사태를 바로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는가.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총격사건은 극단한 개인주의, 인간증오사상과 폭력문화가 빚어낸 필연적산물이다. 미국에서는 출판보도물들이 말세기적인 총기문화를 핵으로 하는 폭력문화를 적극 조장시키고있다. TV오락프로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다. 사회에 만연되는 폭력문화에 물젖은 미국인들이다보니 누구나 할것없이 폭력을 일종의 유희, 도락으로 여기며 총기류범죄의 길에 서슴없이 뛰여들고있는것이다.

미국에서는 상품도적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도적질은 백화점과 보석상점 등의 직원들도 마다하지 않고있다. 한 소매상업연구쎈터는 미국에서 상품도적행위로 한해동안에 입은 손실액이 460억US$에 달한다고 하였다.

알콜, 마약람용행위도 성행하고있다. 미국전국의 대학들에서 해마다 알콜을 람용하는 학생들에 의해 약 70만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있으며 알콜람용과 관련된 10만여건의 성폭력범죄가 감행되고있다고 한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미국이 마약람용자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의 12개 주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마리후아나의 사용이 공공연히 허용되고있다.

미국에서 교육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미국의 력대 대통령들은 교육문제에 힘을 넣어 《문맹자왕국》의 수치스러운 대명사를 없애겠다고 하였으나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돈이 없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자녀들은 엄청난 학비때문에 학교에 갈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학생들의 지식수준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최근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뷴》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미국학생들의 대부분이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일본을 찾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이 직면하고있는 사회적문제들은 이뿐이 아니다. 미국에서 현재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있는 사람들이 무려 4 570만명이나 되며 수백만명이 집이 없어 림시거처지나 한지에서 지내고있다. 수천만명의 빈궁자들이 동냥으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해가고있다. 경제에 활력을 부어주어 실업자수를 줄이겠다던 당국의 공약은 빈 약속으로 남아있다.

미국의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그 반인민성과 취약성으로 하여 기형적인 물질생활과 빈궁화되는 정신문화생활, 더욱 반동화되여가는 정치생활이 지배하고있다. 이로 하여 미국사회는 날을 따라 안으로부터 더욱 썩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종손

ㄱ-01181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